

여천NCC, 가스 누출 “안전사고”

5월14일 오후 보온재 해체도중 화재 ... 직원 2명 부상으로 끝나

여천NCC의 에틸렌(Ethylene) 크래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직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남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5월14일 오후 10시경 여천NCC 공장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무하고 있던 김모씨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불은 공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됐으며 별다른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천NCC 관계자는 “에틸렌 공정과정에서 가스 누출이 발견돼 보온재를 해체하던 중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가스가 누출되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15>